

2022년도 신년하례예배

주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한소망교회당에서

본 교단(총회장 박형진 목사)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10일(월) 오전 11시, 전주 한소망교회당(김종호 목사)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하례식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는 주제 하에 모여서 신년인사를 나누며 새해, 새 일을 다짐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하례예배 전에 가진 환영의 순서에서 증경총회장 류현욱목사는 전북동노회 지경에서 하례식을 갖게 됨을 감사하는 노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총회 서기 김정호목사가 예배를 인

도하였으며, 부총회장 박병욱장로(꽃밭교회)가 기도하고 부서기 김종봉 목사가 예레미야 33:1~3절을 봉독하고 회의록부서기 유남규목사(어울림교회)가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었다.

총회장 박형진목사(새은혜교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새해를 열었다. 이어진 특별순서로 총회개혁공보사 사장 황호관목사(꿈꾸는교회)와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종학목사(재인교회)의 신년사, 축사에는 전북

개혁신학원 신대원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김재호장로(한소망교회)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가 하례식을 진행하였으며 증경총회장과 총회장이 떡 케익 절단의 시간을 가진 후에는 증경총회장, 임원, 공보사 사장 황호관목사(꿈꾸는교회)와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종학목사(재인교회)의 신년사, 축사에는 전북



회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오찬을 위한 기도를 증경부총회장 김일출장로(소성교회)가 담당함으로 의미를 새롭게 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도 전국에서 모인 목사,

장로, 사모님께 그리고 각 노회에서 보내온 찬조와 특별선물을 준비한 박요셉집사(엘라비),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한소망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현장 68명 화상 45명 총113명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종로구 대학로 45번 길, 임호 빌딩 801호에 새로운 동지

일교회)의 교단본부 이전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황호관목사(꿈꾸는교회)와, 증경총회장 임종학목사(재인교회)의 권면과 증경총회장 류현욱목사(동명교회), 증경총회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사가 있는 다음에 증경총회장 김용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사용해온 건물이 건축계획에 의하여 철거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52명의 새로운 사무실을 계약하고 총

회장실, 행정사무실, 강의실, 신문사 등 4개 방을 1개월여에 걸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됨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감사헌금에 참여해 주신 교회와 개인, 그리고 노회를 일일이 소개하였다. 목사와 교회는 박형진(새은혜교회), 임종학(재인교회), 정완득(성인교회), 황호관(꿈꾸는교회), 류현욱(동명교회), 윤서구(임마누엘교회), 김정호(한소망교회), 박만진(덕소제일교회), 이경근(평안교회), 박찬섭(나눔교회), 박경

남(중심교회), 그리고 경기노회, 경서노회,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서울남노회, 서울동노회, 전남노회, 전국장로연합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그리고 김일출장로는 애런, 조진제 목사는 방은수기를, 새은혜교회 박숙기 권사는 반주기를, 임용태, 김정호 목사는 벽시계를 헌물 하셨음을 보고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노회, 경서노회, 경성노회, 서울동노회, 새은혜교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에서 이전축하화분을 보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106회기 총회(총회장 박형진 목사)는 교단본부 이전예배를 성대하게 드린 것으로 전해 왔다.

지난 1월17일(월) 오후 1시, 종로구 대학로에 자리 잡은 임호빌딩 801호에서 가진 이전예배는 서기 김정호 목사(전주한소망교회) 인도하였다.

부총회장 박병욱장로(꽃밭교회)가 기도하고 회의록 부서기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가 이사회 58:11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박형진목사(새은혜교회)는 “목회를 후원하는 교단”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

제106-5차 임원회 소식

사무총장에게 격려금 전달하고, 2월 중 워크숍 갖기로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는 지난 1월 17일(월) 교단본부 이전 예배 후 현장에서 새해 첫 임원회를 열고 새해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총회장 박형진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하여 새로운 본부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여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하고, 부총회장 윤서구 목사(임마누엘교회)가 기도한 후에 서기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가 호명하고 총회장이 개회됨을 선언하였다.

회개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로부터 교단



사무보고와 교단본부 이전 경과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고시부와 교육부로부터 진행 상황보고를 받았다.

본분부이전과정에서 수고한 사무총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한편 2월 중

에 증경총회장단과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임원회를 마쳤다.

참석자 : 총회장 박형진목사, 부총회장 윤서구 목사, 서기 김종호 목사

포토 뉴스

평안교회(담임목사 이경근)가 21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주 시민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주시에 맡겼다. 전주시는 이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제106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6회기 총회주일은 2022년 1월 30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1,000,000원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원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박형진 목사 / 서기 김정호 목사 / 회계 조성운 장로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社 說

교단 응비(雄飛)의 새 기틀

개혁교단의 시작과 함께 등지를 틀고 교단의 선타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던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 시대를 접고 대학로 45번지 안호 빌딩 8층으로 이전하여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 일을 우리 교단 응비의 시발점으로 삼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제106회기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총장께 무한한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중에 주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힌바 있으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6:10)라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개혁교단에 적용하여 정리해 본다.

“근심하는 교단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단이요, 가난한 교단 같으나 교회들을 부요하게 하는 교단이요, 아무 것도 없는 교단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단이라” 이러한 교단이 바로 개혁교단이고, 개혁총회라고 감히 말한다. 새로운 교단본부를 둘러보고서<겉이불누, 화이불철(儼而不陋, 華而不恥)>라

는 말을 떠올렸다. 이말은 오래전 옛날, 삼국시대고사를 정리한 역사가 김부식이라는 분께서 쓴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나타나는 문장이다. 백제의 온조왕 15년에 새로운 궁궐을 완공하고서 왕은 김부식에게 신축한 궁궐을 돌아보고 관전평을 하라는 분부에 따라 그 궁궐의 아름다움을 평가한 말이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의미이다. 결코 넓거나 크지 않은 공간이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총회장실, 사무실, 신문사, 총회개혁신학연구원장실, 회의실,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갖추었다. 아주 좁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쪼개어 120% 효율성을 살려낸 인테리어에 박수를 아니 보낼 수 없다. 기초적인 공간설계는 CEO 형 총회장의 머리에서 나왔고, 섬세한 공사는 사무총장의 손끝에서 나온 합작품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척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기보다는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떤 사무실보다 화려하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은 새 본부와 같은 개혁교단의 새 역사의 기틀로 삼아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교단사랑주일을 염수하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고 펜데믹에 빠진 지구촌이 비틀거리며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기를 2년여, 그리고 모자라 3년 차에 들어섰다.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에서 1일 확진 자 수가 1만 명대를 예측하며 의료붕괴사태를 걱정하고 있는 숨 가쁜 판세이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실업인들 할 것 없이 어렵기는 매 한가지여서 누가 누구를 위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이다. 이런 중에다 설 명절연휴는 어김없이 코앞이다. 상대적으로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이 워낙 뛰어나 세계적인 모범사례라는 자랑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인데 교회라고 예외이겠는가? 비대면 예배, 언택트, 영상예배, 영상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접종, 접종확인 등 코로나가 만들어 낸 신조어들이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아예 구시대 유물을 넘어 불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경계어가 되어 버렸다.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써보겠는가? 열심히 모여도 힘이

들란데도 전혀 모일 수가 없으니 어려움만 가중되어 간다. 교회마다 재정은 바닥이 났고, 결산은 하나마나요, 신년예산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교단은 교단대로 살림살이가 합겹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에 우리 교단은 새로운 일을 저질러야만 했으니 얼마나 다급하겠는가? 예전대로 총회사랑주일은 지켜야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모아야 하니 담당자들로서는 자기를 위하여 돈을 꾸고 빌리는 자세로도 어렵다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것은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포기를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교단사랑의 결기를 보이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과 맞닿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을 막고, 내가 급한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라는 좁은 생각으로 마음을 담아버리면 하늘보고 역시 닫히고 말 것이다. 어렵다. 그러나 더욱 힘을 쓰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 길이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성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15회 3명의 졸업생 배출



교단 직영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2021학년도 제115회 졸업식을 2022년 1월 15일(토) 오후2시,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거행하였다. 가족 친지들로 제한된 하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수진과 졸업생들이 입장함으로 졸업식은 시작되었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이다윗목(사전양교회)가 인도하였다. 총무처장 정영덕 목사가 기도하고, 구약학 교수 김요환박사(송악 권능교회)가

고전 9:14~17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졸업생을 대표하여 김광현 학우의 특송이 있었다.

이날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는 “주의 종의 거룩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원장 임종학 박사의 졸업장 수여와 훈시가 있었다.

영예의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에는 원장상 이현주 학우, 총회장상 김광현 학우, 이사장상 김영훈 학우, 총동문회장상 이현주 학우에게 각

각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이사장 윤서구 박사의 격려사와 교수부장 황호관 박사의 권면이 있었으며 이사 류현옥 박사, 총동문회장 김선영 목사, 교수 박만진 박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장로부총회장 박병욱 장로가 전국장로연합회를 대표하여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총회장 박형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교수진과 졸업생 퇴장으로 졸업식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은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각 신학교마다 목회자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첫 졸업생을 내었으며, 2022년 새롭게 이전한 캠퍼스에서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며, 2월 5일 개강을 앞두고 신, 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전북개혁신학원 2021학년도 졸업식

신학과 44회, 목회학과48회, 신대원 4회, 총17명 졸업생 배출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임종학 목사)은 지난 1월11일(화) 오후2시 신학교 대강당에서 2021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하여 신학과 44회(6명), 목회학과48회(2명), 신대원4회(9명), 총17명의 전도자들을 배출하였다. 이날 졸업식은 교무처장 이경근박사가 인도하였으며, 교목처장 유호결목사가 기도하고 홍보처장 김관희목사가 눅10:1-3절을 봉독한 후에 선교처장 유남규목사와 학생총장단의 특송이 있었다. 총회장 박형진목사(새은혜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총회장은 “신학교 졸업식은 영광스러운 전도자 파송식”이라며

‘복음을 위해 파송 받은 전도자로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천처장 채영구목사가 학교 연혁 및 학사보고를 하였고, 졸업장 수여와 학장의 훈시로 이어졌다. 학장 임종학 박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2년 동안 사교 없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었음은 기적이며 은혜다’고 말하며 ‘영광스런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훈시가 있었다.

훈시에 이은 시상식에서는 신학과 김경렬 졸업생이 총회장상을 이영주 졸업생이 이사장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대원장 정완득박사의 권면에

이어서 권면은 교수부장 류현옥 박사, 개혁공보사장 황호관박사가 담당하였으며 총신이사장 윤서구박사, 총회사무총장 박만진박사가 축사에 주었다.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졸업선물을, 졸업생이 학교에 기념품으로 감의 교탁을 증정했다.

총무처장 진상운 목사가 인사와 광고를 한 후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축도로 졸업예배와 행사를 마쳤다. 한편 전북개혁신학원은 2022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과정은 신학과. 목회학과. 신대원이며 접수기간은 봄 학기3월, 가을학기 8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이다.

전북개혁신학원 학장 이·취임식 성료

13대 학장 이경근 목사 취임, 임종학 목사 이임



본 교단신하 목회자양성기관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전북개혁신학원 학장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난 20일 오후2시 본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취임 감사예배는 상임이사장 전북중부노회장 유남규 목사(서울립교회)가 인도하였다.

전 학장 류현옥 목사가 기도하고 전북동노회장 000 목사가 왕하 2:8~11절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찬양사역자 000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에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는 “엘리아와 엘리사 같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예배에 이어 제12대 학장 임종학목사의 뒤를 이은 이경근 목사의 13대 학장 취임축하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12대 학장 임종학목사의 이임사와 제13대 신임학장의 취임사에 이어서 이사장 김황용 목사가 이임 감사패와 취임패를 각각 증정하고, 전 학장 이재식 목사와 개혁공보사장 황호관 목사의 권면, 전 학장 최재철목사, 전 이사장 정진호목사, 전 이사장 이수봉 목사의 격려사가 있은 후에 전 이사장 김일출장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윤서구목사,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경근목사는 전주대학교 사범대(BA), 개혁신학연구원(M.Div.)을 졸업했으며, 전북동노회장, 제105회기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안교회원 담임하고 있다.

새로운 학장을 맞이한 전북개혁신학원은 70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2022년 현재 1,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전교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제공하며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한편 12대학장 임종학목사는 이임사를 통하여 “전북지역 사역자 양성의 산실인 전북개혁신학원의 학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하고 이임하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본교가 더욱 발전하여 교단의 영적인재를 키워내는 대표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임기동안 협력해준 이사장, 교사,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특별히 변함없이 동역하고, 기도서 후원해준 아내 양영자 사모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여 박수를 받았다.

13대 학장 이경근 목사는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여 개혁주의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하는데 힘쓸 것과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입각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포부와 경건하고 실력 있는 주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는 취임인사를 전했다.

제106회기 고시부 화상회의

2022년도 준목고시 1차 준비모임

제106회기 고시부(부장 류현옥 목사)는 준목고시준비를 위한 전체회의를 지난 1월22일(토) 오후5시 화상회의로 가졌다.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고시부 서기 유남규 목사가 인도하였으며, 윤서구 목사(임마누엘교회)가 기도하고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동명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강대

민 목사(성원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의결사항은 예비소집일정 및 세미나 2022년 5월19일(목) 오전11시, 전북개혁신학원으로 고시일정 및 장소는 2022년 6월13일(월) 오전11시, 교단본부로 각각 정하였다.

이날 결의된 고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총회개혁공보 광고로 2차에 걸쳐 공지하기로 하였다.

2022년 106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8장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영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2. 고시일정

- ① 원서교부 / 서울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개혁신학원(063-252-1531)
- ② 제 출 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010-4020-0675)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이메일 : ynk8283@hanmail.net
- ③ 제출서류 / 1)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2) 신학교(연구원 과정) 졸업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명함판 사진 3매

- 1) 원서접수 / 2022년 4월 29일 당일소인유효
- 2) 고시료
- ① 원서대 / 20,000원 ② 응시료 / 400,000원(논문 및 제출과목 심사비 포함)
- ③ 특강료 / 100,000원(교재비포함)
- ◆ 접수시 응시료 및 특강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고시과목

- 1) 제출과목
- ① 논문제목
 - 한국교회 성상(민족 복음화)과 목회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20매
 - 양식/ 글자크기/ 견경조 11 줄간격/ 180. 여백/ 위쪽 25mm 좌우 25mm 머리말 15mm 쪽번호 아래쪽 중앙 -1- 아래쪽, 꼬리말 15mm

- ② 성경주해
 - 구약 : 호세아 1:2~9"이슬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하되 A4 5~6매

- ③ 설교문
 - 로마서 1:16~17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A4 5~6매

- ④ 제출마감 / 2022년 4월 29일 당일소인유효
- ⑤ 제 출 처 /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⑥ 문 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4. 위원선정

- 1) 소위원 : 3명=부장, 서기, 회계
- 2) 심사위원 선정
 - (1) 논문: 강대민, 박동혁, 이철영
 - (2) 주해: 임종학, 채영구, 이부교
 - (3) 설교: 윤서구, 유남규, 신현식
- 3) 과목별 세미나 강사 선정
- 조직신학 : 임종학, 정치 : 강대민, 교회사 : 윤서구

5. 일정 및 장소

- 1) 예비소집 및 세미나: 5월 19일(목) 11시 전북개혁신학원
- 2) 고시일 및 장소: 6월 13일(월) 11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 010-9654-5180
서 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고시료송금계좌 : KB국민은행 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고시부

총 회 장 박형진 목사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
서 기 유남규 목사

성경강해



장 영 목사
(신약학 교수)

오늘은 3:14?22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 공부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리커스' 강 계곡 남쪽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으며, 강 건너 북쪽으로 히에라볼리 지역과는 8km, 강 같은 편 동쪽으로 골로새 지역과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었 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로 뻗은 대로와 또 거대한 아 시아 지역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대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여러 상공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습니

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보니 자연 히 은행업같은 금융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두아디라가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다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검은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흰 양털 에 검정물감을 들인 것이 아니고, 천연 흑색 양털로 광장히 고급옷감을 만들었 던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하였고, 무엇보다 안약으로 유명하였는데 '테 프라 프루기아' 라는 안약은 당시 모든 나라와 도시로 수출되었으며, 이 안약을 가루로 잘게 부수어 눈에 뿌렸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용한 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본문을 봅니다. 먼저 14절에서 라오 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아"가 말씀 하신다고 했는데, 아멘이란 "진실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순 참기름'이라

게시록 5분 강의노트 (11회)

고 반복 표현하며 강조하듯, 주님은 '진 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그 이 상의 증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뜻 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창 조물의 근원이요 기원이며 모든 것의 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5-17절에서 칭찬 한마디 없이 대뜸 책 망부터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망부분 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표현은 그곳 사람이란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생활 속의 표현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고, 동쪽에 있는 골로 세는 매우 "찬 샘물의 도시"로 유명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 지역들의 특징들로 부터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 지도 아니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달했을 때는 물이 미지근해져서 먹기에 역겹게 되는 생활 속의 경험을 들어, 라오디게아 교 회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16절)고 아주 심 한 책망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 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 도다."란 표현은 역설적인 성격이 돋보 이는 표현입니다.

그 도시는 돈이 많아 금융업이 발달 했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 게 해야 하고", 검고 윤기나는 양모로 짠 고급 흑색모직물로 유명했지만 "흰 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 지 않게 해야 하고", '테프라 브루기아' 라는 안약으로 유명했지만 "안약을 사 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고하신 것 입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라오디게아 사람들 의 생활 속의 경험들을 반영하여 교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8-20절까지는 권고에 따른 약속부분인데, 요약하자면, 그들이 열 심을 내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 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 을 약속 하시는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 실은 가장 회개책망을 받은 라오디 게아 교회가 가장 큰 상을 약속받기 때 문입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보 좌에 앉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편, 그 "보좌"란 특별한 단어는 4장의 시작부분에서 다시 나타남으로 3장의 끝과 4장의 시작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귀있는 자는 성령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어다" 라고 말씀을 끝맺음으로, 라오디 게아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른 교 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 든 교회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동 정



박형진목사(총회장, 새은혜교회)
1월 10일(월) 교단 신년하례식 설교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설교
1월 15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설교
1월 17일(월)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설교



임종학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1월 10일(월) 교단신년하례 신년사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 졸업식 주관
1월 15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주관
1월 17일(월) 개혁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축사



류현옥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 환영사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격려사
1월 15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축사
1월 17일(월) 개혁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축사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 신년사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권면
1월 15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권면
1월 17일(월) 개혁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축사



윤서구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 축사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축사
1월 15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격려사
1월 17일(월) 개혁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축사



정완득목사(증경총회장, 성인교회)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에서 축도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권면
1월 20일(목) 전북개혁신학 학장 이.취임식 축도



이경근목사(직전총회장, 평안교회)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 축도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인도
1월 20일(목) 전북개혁신학 학장 취임



유남규목사(회의록부서기, 어울림교회)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 특송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특송
1월 17일(월)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김재호장로(장로연회장, 한소망교회)
1월 10일 교단 신년하례 축사
1월 14(화) 한국장로연합회 신년하례 인도



박만진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1월 10일(월) 개혁 교단 신년하례회식 인도
1월 11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축사
1월 15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식 축사
1월 17일(월) 개혁 교단본부 이전 감사예배

조직신학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 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 라고 하심으로써 종족을 보존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다.

로마서 5장 12-14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 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 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 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 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의 모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 어오고"는 헬라어로 "판타스 헤말톤" 은 제2완전 과거 직설법이다. 즉 "지나

간 과거 어느 시점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담을 말하 는 시제"이다. 따라서 아담은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이 되며 생물학적 조상 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됨을 명백히 하 고 있다. 아담의 조상성에 대하여 학자 들은 대표 조상론과 생물학적 조상론 을 각각 주장한다. 대표조상론(Federal Headship of Adam)은 개혁 교회가 채택한 이론으로 아담의 범죄는 우리 인 간이 범죄할 수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 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식민주 정책을 뒷받침하 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이론 으라서 이상적 개혁주의와 인본주의가 혼합 된 이론으로 일부 개신교에서 진 화론을 수용하면서 택한 이론으로 자 연신주의(Deism) 신학을 채택하는 노 선에서 주로 주장한다. 이와 달리 생물

학적 조상론 (Seminal Headship of Adam)은 성경에 근거한 이론으로 어 거스틴이 처음 주장한 이론이다. 생물 학적 조상론은 완전 타락에 근거하여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 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기록함 으라서 아담이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 이 됨을 증언하고 있다. 이로써 생물학 적 조상론은 인류의 통일성과 단일성 을 강조하는 올바른 이론이라 할 수 있 다. 인류의 혈통의 문제에 있어서 아담 을 한 혈통으로 하여 번성한 인류는 또 한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피조물 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22-45절은 아 담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구별됨을 말하고 있다. 즉 아담은 인류의 생물학 적 조상으로 진화론이나 신적 진화론

등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유인원이 진 화한 고등동물이 결코 아담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으나 그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돕는 배필"이란 히 브리어로 "돕다, 보호하고 감싸주다" 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Support를 의미 한다. 본질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로써 질적으로는 같으나 성격은 다른 순수 한 인격적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관계 를 가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류의 조상이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 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 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 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스리다"(창 1:26)는 '관리하 다' 또는 '돌보고 살핀다' 라는 뜻이며 "정복하라"(창1:28)는 땅이 식물을 잘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리를 굽혀 돌보라는 의미하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 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 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관리자, 즉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주언교회 설립예배

전북중부노회 소속 임미향 준목

전북중부노회(노회장 유남규목사)는 지난 1월 22일(토) 오후2시, 주언교회 (담임 임미향 준목)의 설립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 왔다. 이날 예배는 노회장 유남규목사(어울림교회)가 인도하고,

증경노회장 진상운 목사(예bene셀교회)가 기도하였다.

부서기 박속희목사(동산교회)가 마 태16:16~19절을 봉독하였으며, 증경 총회장 정완득목사(성인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노회장 유남규목사가 교회설립을 공포하고, 정완득 목사를 당 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이어 증경총회 장 임종학목사의 권면, 전주영생교회 담임 김동연 목사의 격려사가 있는 후 에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 김형용 목 사의 축사가 있었다.

전북중부노회 준목 동기들이 찬양하

는 중에 설립헌금시간을 가졌다. 주언 교회의 담임 임미향 준목의 인사말씀과 광고가 있는 후 정진호 공로목사의 헌 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주언 교회의 담임교역자인 임 미향 준목은 전북개혁신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지 난해에 전북중부노회로부터 준목 인허 를 받고 목사임직을 준비 중인 장래가

촉망되는 교역자이다.

임 준목은 전주영생교회에서 전도사 로서 신앙훈련과 목양실습을 충분히 쌓 으며 교회설립을 준비하여 왔으며, 전 주영생교회는 주언교회의 모교회로서 향후 2년 동안 재정을 비롯하여 개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교회의 귀감이 되 었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박형진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0	류현옥	300,000
총회신학교	500,000	박연성	50,000
박 형 진	200,000	신연식	50,000
경기 노회	100,000	조강희	50,000
전북 노회	100,000	박광식	350,000
전북동노회	100,000	김일출	1,000,000
전북중부노회	0		
서울남노회	0		
서울동노회	100,000		
경서 노회	0		
경중 노회	0		
남부 노회	0		
황 호 관	100,000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상설교

참된 목자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박성욱 목사
(변영교회)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이신지 진실되게 소개해주는 사람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목자들 로 인하여 혼란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 목자임을 주장하 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뿐 아니 라 평신도라도 먼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의미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는 어떤 목자를 두고 말할까요?

1. 참된 목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영적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은 누군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열심을 낸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2장 4절을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칠십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 일까요? 저는 저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법과 힘, 통치력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소개해준 중매쟁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 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목숨 거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2. 참된 목자는 양떼를 염려할 줄 아는 목자입니다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의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참 목자로서 성도들이 예수를 떠나 사탄의 음침한 꾀짜기로 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쓰러질까봐 양떼들을 염려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양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사, 장로, 교사, 들은 다 참 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염려할 줄 아는 목자입니다.

3.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풍성한 자입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졸렬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말해주는 부족했지만 성경의 지식에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3장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겨워하고 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기업탐방



스스로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도 했던, 너무나 무힘들었던 그의 사춘기! 그러나 다시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오직 주님 한분! 대학교 2학년 000를 통해 훈련받았던 그 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된 포크레인 사고, 그리고 회개! 오늘의 운트바이오 대표로 우뚝 서서 선교사님들께서 이 강산에 뿌린 피 값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선교사 후손 초청 잔치의 일환으로서 윌리엄 선교사의 후손 맞을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중년의 집사, 전용수 회장과 의정부 한편에 자리 잡은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Q. 먼저 독자 여러분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진도 갈렙’입니다. ‘갈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갈렙’이라는 이름에 ‘개’라는 뜻도 있음을 안 뒤로<진도 갈렙>이라는 이름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 중에 개는 진돗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심히 작지만 나 스스로 갈렙이 되기로 작심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종 갈렙! 진도 갈렙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자는 마음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도 갈렙>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Q.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과정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생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방황하고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나를 붙잡아 준 손길이 주님이었습니다. 매우 불안했던 시기에 저는 교회생활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고, 그 신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대학교 2학년 때 000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하게 되었고,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Q. 현대 사회문제 중에 심각한 것이 가정의 붕괴입니다. 집사님에게 가정은 무슨 의미이며 가정에서 집사님의 모습은 어떻게십니까? 가정이란 가장 소중한 사회기본단위 생각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큰 명예와 대

단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Q. 그러면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입대하기 전, 대학교 1,2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었을 때였지요. 000에서 사랑방이라는 공동체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인생의 목적과 비전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확실히 한 때였지요. 내 삶의 방향이 확정되었고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궁극적 해답을 얻은 그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Q.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경험이었을 텐데요. 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군대생활을 마친 후, 복학을 앞두고 도로포장공사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한쪽 길을 막아 놓고서 차량을 통제하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어떤 차가 막아놓은 철봉을 뚫어뜨리고 내 앞으로 돌진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해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넘어진 터라 심하게 아픈 척 허리무드엑션을 했지요. 그분은 상을 당해 급하게 가봐야 한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떠나면서 6만원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 일, 얼마 후에 포클레인 주석과 정면충돌하여 앞마미를 10바퀴 이상 꺾매는 큰 사고를 당했지요. 한 달여간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였지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남의 불행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깊이 깨닫게 하였고 철저한 회개했습니다. 그일 후로 지금까지 남의 약점과 어려움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다는 철칙을 삼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셈이지요.

Q. 현대 사회문제 중에 심각한 것이 가정의 붕괴입니다. 집사님에게 가정은 무슨 의미이며 가정에서 집사님의 모습은 어떻게십니까? 가정이란 가장 소중한 사회기본단위 생각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큰 명예와 대

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는 50점짜리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에 전념하다 보니 가정에서의 역할은 잘하지 못했거든요. 요즘 와서 철이 들어 반회해 보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돌아온 방자’와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도, 자녀들 에게도 그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Q. 이제 사업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지요. 지금 운영하시는 ‘운트바이오’를 알고 싶습니다. ‘운트바이오(UND BIO)’라는 회사명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저를 평소애 많이 도와주시는 의사인 신 고객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운트’는 독일어로써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접속사 앤드(AND)라는 뜻으로서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고, 장소나 지정학적인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나와 너를 연결해 주는, <우리>’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운트>는 에버라스팅(everlasting), ‘영원히 지속되라’는 의미가 있고, 다음은 발음을 할 때, <운트>하면 ‘운이 트이다.’라는 말의 줄임말과 같아서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 설명대로 저희회사의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부를 때 운트조? “운이 트여라.”고 하거든요. 블레싱(Blessing)의 의미로, 계속 운이 트이고 성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바이오>는 저희 회

회들이 연합해서 2020년도에 복음통일을 위한 통일선교대회의 1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모임을 매주 월요일마다 1년 11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역의 기본방향은 한 반도의 복음통일과정, 통일 후, 북한교회회복, 경제 재건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통일 후, 남북한의 화해와 실질적 하나 됨을 위한 준비로서 탈북민들이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에 쉽게 적응하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한편 남한통일세대들에게는 복음통일의 비전, 꿈, 청사진을 제시하여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실천을 위한 작은 사업으로서 매 주열리는 <경기북부 청년연합찬양집회>를 정기후원하고 있지요. 이 집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들과 복음통일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갖는 초교파집회로서 지역교회연합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Q. 사업과 신앙사역을 병행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텐데, 특별한 충언요법이라도 있나요? 기업경영도 그러하고, 신앙사역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난관에 부딪히거나 장애물을 만나 위기에 봉착하면 가까운 동역 자들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누며 교제함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열정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 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겁고, 완벽에 가까운 할랄 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Q. 포스트 코로나와 인공지능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예견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경영하는 사업 분야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서비스산업 부분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경영방식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을 예상합니다.

요즘 글로벌 경영 기준으로 서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화두일 뿐 아니라 중요한 기업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운트 바이오>역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역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역사를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물리적 통일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언택트>, 비 대면이라는 말이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과 같은 첨단영상도구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다양한 소모임, 찬양집회는 물론 각종 세미나 등도 특정국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면에 이어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총회신학 연구원 후원 현황 (2022년 1월)
박형진 총회장-찬양반주기 / 전국장로연합회-50만원
무명-100만원 / 안산 새은교회-10만원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복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예뮈

1. 접 수 : 2021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가민간자격증 교육지원 가이드

150여개 민간자격 & 30여개 국가자격과정

유망/인기 자격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 최고의 교수진 - 일타강사
- 고품질 콘텐츠 - HD 고화질 / 강의 품질
- 비대면 교육 - 모바일 / PC 수강가능
- 코리아 관리 - 취업경쟁력 제고

레스큐자격교육센터 - 국가 / 민간자격 총 180여개 과정 오픈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 전 국가자격과정 - 최고의 강사진 보유
- 교재구매시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 합격율을 높이는 최고의 교재구성

레스큐자격교육센터만의 혜택 (민간자격증)

- 동영상 수강료 / 시험 응시료 전액 무료 지원
- 100%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
- 자격증 신청시 - 상정형 / 카드형 제공

레스큐자격교육센터의 민간자격과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 과정 정식등록
- 각 분야별 인지도 높은 전문협회 자격증
- 2021년 최신 제작된 HD 고화질 강좌
-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
- 비대면 교육 - PC / 모바일 강의 수강 및 검정가능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 레스큐자격교육센터 www.rescuecerti.com

서울종로A자격증센터
센터장 박 만 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195-11, 임호빌딩 801호
010-6358-0191 / pmj0675@naver.com

재언

다시, 또 한 번 달리자!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역사에서 모든 종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한나 아렌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해를 선물로 주셨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새해가 시작되면 잃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며 한해를 바라보는 뜻있는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된다. 사랑하는 동역 자들이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한 번 힘껏 달려 보시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라면 반드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야 한다. 상을 얻기 위한 선수라면 피와 같은 땀을 흘리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법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상을 얻고자하는 선수라면 법에 맞는 경주를 해야 한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도 법을 무시하고 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훌륭한 선수가 아니다. 훌륭한 선수는 기초훈련과 아울러 운동규칙에 맞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인기 하나하나를 규칙에맞게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격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된다. 하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선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썩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도 결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허물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우리들이자나 께나 힘써 노력하지 않겠는가? 요사이 우리는 마음이 헤아려져서 세상풍조를 따르고 세상풍습에 잠시 물들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일하나 우리는 썩지 않고 썩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사는 천국 시민이요, 일꾼들이다. 천국시민답게 살아가야한다. 우리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

신년사



황호관 목사
(증경총회장, 본보 사장)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서 종전할 수 없다면 함께 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하여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오월동주와 같은 삶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샘이라도 하듯이 남아공으로부터 시작된 오미크론이 급습하여 대책 없는 강편치를 날리는 통에 그로기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자라도 저희는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불행 중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목회자, 그리고 동역자시는 사모님, 미운 정, 고운 정 쌓아가며 목양사역에 협력하시는 장로님들, 교

단산하 모든 개체교회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신년 인사드립니다. 지난 연말경인 12월 26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전국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시대를 조망하는 사자성어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모 언론사가 발표했습니다. 1위는 '고양이와 쥐가 한곳에 함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묘서동처(貓鼠同處)'를 참여한 교수 29.2%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고 다음은 21.1%가 찬성한 인곤마지(困馬之)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의미요, 그 다음은 17%가 뜻을 모은 이진투구(泥田鬪狗)이나 "개들이 이익을 위해 진흙탕에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소망의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자성어 들을 한국의 공동지성교수그룹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묘서동처라는 사자성어를 뽑은 교수들은 오는 3월에 있을 대선을 걱정하는 의미로 이 말을 선정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털썩

4-H 교회운동을 제안합니다.

었는가? 그것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며,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서 "국운"을 맡겨야 하는 딱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세평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한 교회의 할로는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타개책이라 확신하며 감히 제안합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인 1947년 3월에 4H 클럽이라는 청소년계몽운동이 한반도에 착륙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타 올랐습니다. 4H 클럽은 미국에서 비롯된 농촌청소년 살리기 운동으로서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후 70년 만에 세계선진국대열에 진입한 것은 4H 운동세대의 선한 영향력의 결과로 평가하는 그룹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4-H 클럽의 슬로건은 이러합니다. 나는 4H 공동체와 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Head)는 더 명철하게 생각하고, ▲나의 가슴(Heart)은 더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나의 손(Hand)은 더 큰 봉사를 하는데 있고 ▲나의 건강(Health)을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치기로 맹세한다."입니다. 이 슬로건을 벤치마킹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 새로운 활로를 여는 방안으로서 <4-H 교회운동>을 펴자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교단은 지난 9월 제106회 총회의 슬로건을 하나님 의 은혜로 회복된 평화로운 총회로 정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교단이 앞장서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Holy), 건강하며(Health), 행복하고(Happy) 소망(Hope)이 넘치는 교회 세우기 운동입니다. 내가 거룩하나 너희도 거룩하랴 말씀하였음에도 오늘의 교회는 어느 곳에서도 거룩함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교회의 거룩 성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성숙의 구별이라는 말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되어서 기독교는 개독교로 전락했습니다.

도덕성의 회복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라 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고, 불 꺼진 등일 뿐입니다. 거룩 성을 잃은 교회, 아니 거룩 성을 포기한 교회는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뻔한 삼손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자정능력이 전혀 없어진 약골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교회의 건강을 되찾읍시다.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합시다. 코로나 19는 교회가정을 해체시켰고, 가정 같은 교회는 철저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교제의 떡을 떼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부도덕한 교회, 허약한 교회, 행복을 잃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 낙이 없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개혁신교단이 앞장서서 4H 교회운동을 전개하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한국교회를 살려내는데 앞장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신년사를 가름합니다.

초청칼럼



문용길 목사
(한마음교회 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존재의식을 갖게 되는 자존감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감각, 아니 감정이 아닐까 싶다. 자존감은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감각의 기본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감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호흡하고 말하며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생존의 상태에서 자존감 없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나 자신, 존재의 첫 감각인 자존감을 분명히 그리고 선명하게 느끼며 소유하고 있다. 매일 매일 나의 자존을 인정하는 사소한 일

과들을 열거해 본다. 먼저 길게 호흡하며, 두 팔을 펴고 일어나 기도하고, 양치하고 물마시고, 글을 쓰며, 내 생각을 가장 깊고 넓고 높게 펼쳐갈 때 나의 자존감은 극대화된다. 이런 소소한 일상으로 자존감이 극대화된 그 순간에 동반자가 곁에 있어 '잘 잤어요? 사랑해요' 짧게 나눈 한 마디는 나의 자존감의 밀도를 조밀하게 만들어주는 조미료가 된다. 성경을 읽고, 아침 식사 후 신문을 펼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정을 살펴본다든가, TV를 시청하는 순간 역시 자존감을 드높여준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강건한 자존감은 나의 정체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때에 의와 불의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나의 행동도 규제를 받게 된다. 내게 이런 모습은 일상화되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다. 이러한 나의 사고는 '나'라는 한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난 후 더욱 선명하게 느끼며 소유하고 있다. 매일 매일 나의 자존을 인정하는 사소한 일

자존감과 자존심

뜻이니 어찌 그리하지 않으랴! 사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흔히들 작은 우주로 비유하는데 옳은 말 이긴 하나 나 자신을 지켜 보호하기는 너무도 그 범위가 광활하고 추상적이어서 실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에 밀착시켜서 마치 창을 든 호위병처럼 나 자신을 지켜 보호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로 스스로 약속하고, 그 과정을 승화시켜가고 있다. 먼저는 감각과 五感의 활발한 기능을 체크하고, 그다음은 혹 어제 말의 실수는 없었는가? 점검하여 검증된 더 좋은 언어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하여 보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바른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감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의미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알찬 자존감을 위한 나의 결단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알린다. 힘이 닿는 대로 남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특히 감사를 입에 달고 살기를 심히 노력한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내 자존감의 표현이다. 이런 일상이 실제적인 일과인가? 하고 물으면 내 마음과 행동이 포함된 이야기라고 대답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감은 자신과 이웃을 위해 선의의 뜻을 내포하고 기본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인 듯싶다. 그러나 자존심은 자존감에서 파생된 말인데 여기에 자만, 교만, 이기심 등이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말 같아서 시기주의 발상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생각에는 확연히 구분되는 말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아닌가 싶다. 잠16:32절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은 실행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하다. 오히려 시127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생략)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이 말씀이 자신을 지켜 자존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의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꾸준히 힘쓸 때, 미래의 주변 환경은 정경계 되고 쾌적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는 주역이 될 것은 자명한 일하기에 내 자존감을 특별히 사랑하고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나 자신으로서 존재감을 더 새롭게 하리라 다짐한다. 누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대답한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외모와 내면의 세계, 말소리와 함께 나를 알리는 습관과 말투가 나다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 대한 감사를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한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절대적이어서 비교나 비유적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바로 네 몸같이 하라 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모두 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재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9:00 주일: 11:00 주일: 4:30 수요일: 7:30 금요일: 7:30</div></div></div><div>담임 임중학 목사</div><div>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7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div></div>	<div><div>성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5:00 수요일: 7:3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강대민 목사</div><div>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div></div>	<div><div>덕소제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요일: 7:3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박만진 목사</div><div>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div></div>	<div><div>평안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3:30 수요일: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div></div></div><div>담임 이경근 목사</div><div>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div></div>	<div><div>광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오후 3:00 주일: 7:30</div></div></div><div>담임 장영광 목사</div><div>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div></div>
<div><div>모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05:0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7:30 수요일: 7:30</div></div></div><div>담임 홍주일 목사</div><div>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div></div>	<div><div>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조신제 목사</div><div>14763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4-84 전화 032-346-1235/ 010-3727-9665</div></div>	<div><div>꿈꾸는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황호관 목사</div><div>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div></div>	<div><div>남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최갑철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010-3654-4191</div></div>	<div><div>낙원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05:00 주일: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김정봉 목사</div><div>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 2길 10 전화 010-2375-5937</div></div>
<div><div>화평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7:30 금요일: 오후 9:00</div></div></div><div>담임 박종목 목사</div><div>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전변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div></div>	<div><div>새목장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김만수 목사</div><div>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광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div></div>	<div><div>중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오전 10:30 주일: 오후 1:00 수요일: 7:30</div></div></div><div>담임 박경남 목사</div><div>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한현동, 삼성비더체니스)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div></div>	<div><div>벤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 1부 4:30 2부 7:30 수요일: 7:30</div></div></div><div>담임 박성욱 목사</div><div>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div></div>	<div><div>한빛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 1부 4:30 2부 7:30 수요일: 7:30</div></div></div><div>담임 임용태 목사</div><div>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6 전화 010-5397-2627</div></div>

양영자 사모 내조 記~12



양영자 사모
(재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말씀

을 마음에 새긴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온 지 어느덧 20여 일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에 나는 임종학 목사 內助記를 쓰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나름 의미 있는 1년을 보내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글을 여저 마무리 할까 고민하고 있던 터에 지난 1월 20일 전복개혁신학원 학장 이, 취임식에 참석하신 개혁공보 사장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서 이미 마음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다. 더는 쓸 이야기 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직한 나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황 목사님께서 부족한 내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감사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황 목사님의 조언과 남편의 격려를

힘입어 해외 선교와 선교여행담을 시작으로 몇 차례 더 쓸 용기를 냈지만 괜한 망언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도와 함께 해외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지상명령이다. 이 명령을 따라 우리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민족복음화와 해외선교를 분명하게 밝혔다. 교회를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 예산의 20%는 선교를 위해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출발했다.

교회설립초기의 재정형편은 태부족이었다. 마음과는 달리 20%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은 없다. 재정장부를 살펴보니 정확하지는 않으나 선교비로 매월 10%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교회 설립 10개월째인 1987년

10월에 송종록 전도사가 부임했다.

송전도사는 우리교회에 재임하면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우리교회의 1호 파송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ESF(기독교대학인회) 파송선교사였으며 우리교회가 선교비를 후원하는 협력선교사였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선교사 후원을 늘려갔다.

10명~13명의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2,3곳 국내지역 교회와 전주 EBF, DSM, EBF본부, 굿네이버스, 전복CTS, 밀알심장재단 등을 후원했다.

그 가운데 송종록(중국), 김희상(스위스), 김영상(필리핀), 박천권(중국)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사역자 출신들이다. 선교사들의 사역 지를 중심으로 단기선교와 선교지 방문을 이어갔다. 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남편과

3명의 성도들이 정석전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의 춘부리 선교 센터에서 단기선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남편은 태국의 주일학교 교사 400여 명에게 4일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동행한 김준용, 박천권 집사님과 김미선 자매는 남편을 도우며 선교지를 탐방하였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중국선교지역은 1990년대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때에 남편은 여러 번 우리 선교사들이 양육하는 중국 대학생들에게 성경강의를 하러 다녔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경비문제로 못 갈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년 다녀왔으며 나는 3번 정도 동행하며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성경 강의를 할 때에는 중국公安의 감시의 눈을 피하여 은밀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모임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한두 명씩 거리두기를 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여야 했다.

모임 장소에서는 스티로폼이나 담요 등으로 창문을 모두 가리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찬송도 작은 소리로 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뜨겁게 성장하며 복음으로 변화 받는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와 사랑이 풍성한 중국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 당시 13억 명의 중국인들 가운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가정교회와 작은 공동체들이 중국 곳곳에 세워져서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라웠다. 중국 현지를 방문 중인 우리는 가정교회 예배 체험을 위해 주일예배를 드리러 갔다. 두 세 명씩 짝을 지어 여러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조는 한 가정의 2층 방으로 안내되었다. 집주인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열두세 사람 쯤 모여있으며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찬송하고 성경을 읽었다.

말씀을 설명하고 서로 나누었다. 예배는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했다. 중국식 묶은 쌀죽과 데친 야채가 인상적이었다. 몇 가지 음식이 더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4면에서 이어짐)

Q, 지금의 집사님이 있기까지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초등학교시절의 주일학교 선생님과 목사님이십니다. 내 신앙의 70~80%는 아마 그때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들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 CCC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며 비전을 보고 꿈을 꿀 것이 내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요.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CCC 슬로건이 지금도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Q,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기준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기준이 최종완성 단계가 아니라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하나님께 여쭙고 주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신앙공동체에 물어봅니다. 회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역들과 의논해서 하지 내가 먼저가 되어 결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비치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

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족목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 뜻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Q, 집사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전 세계가 매우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매우 혼탁하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다른 표현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반면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인간의 악과 범죄가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므로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의 아버지 시나가요.

Q, 집사님께서 이번에 의정부 기독교실업인회 7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중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남북한의 중점사업인 의정부에서 먼저 통일한국 꿈의 품고 이루어가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습니다. 통일세대인 청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마 하나님 수련장을 열고 지속적으로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며 지역

교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조하여 의정부지역, 넓게는 경기도 북부지역 복음화를 위한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일기동안 지역교회의 지도자들과 빈틈없는 협력관계 유지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Q, 집사님께서 아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 초청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별도로 쓴(우리암&우광복 이야기)에 소개한 우 광복 (George Williams)선교사는 한국교회 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있을 수 없는 은인입니다. 그 분의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결단과 조연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한국이 있다는 평가가 사실이라면 마땅히 기억하여 기리고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가 기념 사업회, 공주 영명학교, 공주 기독교실업인회, 그리고 의정부 기독교실업인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에 생존하는 후손들을 찾아내어 한 국가에 초청하여 선교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게하고, 정부차원의 건국훈장을 추서하도록 하여 선교사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사업입니다. 2023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기독교 실업인 전국대회에 함께 참석하여 훈장을 추서하고 대대적인 환영대회를 갖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우리암 선교사의 후손은 50여명이며 그 분들을 모두 초청하여 한국의 교회와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특별기고

프랭크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한국명 우리암, 1883~1902)는 1883년 미국 콜로라도 주주 윈저에서 태어났다. 1903년 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23세 약관의 나이로 불모의 땅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듬해인 1907년 인천에서 첫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광복(禹光復, George Z. Williams, 1907~1994)이라 지었고, 연년생으로 딸 '율리브(1908~1919)'를 낳았다.

이듬해 2월경 논산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공주로 돌아오는 중에 비를 만났고, 근처상여집에 들어가 비를 피해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한 장례용품을 보관해 둔, 그야말로 방역무방 비지역이었던 터라 즉시 장티푸스균에 감염되어 그 길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졸지에 과부가 된 부인은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 충격을 벗어나 고단한 심신을 추스르고 있던 후에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와 공주지역에 교회들을 세우는데 헌신하여 많은 기여를 하는 등 47년간 선교사역을 한 것으로 역사가 증언한다.

한편 인천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초등학교와 영명중학교를 마친 아들 우광복은 조부모가 계신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시로 돌아가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마친 후에 아버지 우리암,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 11세의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

랑하는 여동생 윌리브가 묻혀 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한국 땅으로 돌아온다. 그 때는 1945년경으로서 일제로부터 광복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하지 장군은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프랭크 윌리엄스, 우리암 선교사의 아들 우 광복(조지 윌리엄스)이다. 광복은 자연스럽게 하지 장군의 참모

독교인들이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결정적인 동기요, 원인이 되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션 터파를 시작했고, 기독교인 국방부장관이 군대인애목사를 둘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의 의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음은 하나님의 섭리요, 우 광복의 공로라 아니할수 없다.



(주)윌리브이오 전용수 회장

로서 한국 민주정부수립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하지 장군은 우 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우광복은 이 사실을 어머니와 의논하고, 어머니는 즉각 급식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50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그중 48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정부가 수립될 때, 요요소에게

우리나라 제헌국회 속기록의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때 기독교인이 5%도 안 되는 때였다. 그런데 윌리엄스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20년 만에 5배만이 되고, 30년 만에 1천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를 일기로 소천했는데 유언하기를 '11살에 죽은 내 동생 윌리브가 공주 영명동산에 묻혀 있으니 그 옆에 나를 묻어 달라 했다. 한평생,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여동생이 가슴에 있었을 게다.

그래서 지금도 우광복의 묘는 동생 윌리브 엘리스의 묘 옆에 나란히 있다. 공주시 영명중학교 연역에 보면 1903년 10월 15일에 윌리엄스 선교사가 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뒷산에 가면 우 광복 선교사의 묘를 볼 수 있다. 그는 비록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지는 않았지만, 선교사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특히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기에 기독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 정부와 한국교회의 산증인이시다.

공주 영명 학교는 영원한 광명 (=Bernal Light)이란 뜻이며, 아버지 프랭크 윌리엄스가 1906년에 세웠다. 이 학교의 모체는 명신학당이고, 설립자는(엘리스 하몬드)요, 이 학교에서 유관순이 1913년부터 공부했으니 그는 엘리스 선교사 밑에서 배웠던 것이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호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div></div>	<div><div>등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3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로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div></div>	<div><div>극동선교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박봉주 목사</div><div>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비길 11-9 전화 010-9980-1156</div></div></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정원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로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div></div></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8:00</div></div><div><div>담임 김양석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div></div>	<div><div>월드비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성가네 전화 010-2301-0898</div></div></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3:30 수요일밤: 7:30 구약예배(금): 9:00</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화명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div></div></div></div>	<div><div>증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김정웅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담임 이승규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div></div></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곡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div></div>	<div><div>은누리사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오후: 7:00</div></div><div><div>담임 이혜동 목사</div><div>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div></div></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div></div>



2022년도 신년하례 감사예배
 주 제 :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교단 일시 : 2022년 1월 10일 장소 : 한소망교회당

교단본부 이전 감사헌금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서 기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000,000원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복소제일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임종학 목사 (재인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 (동명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이경근 목사 (임마누엘교회) 500,000원	박찬섭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500,000원	증경부총회장 김일술 장로 (소성교회) 4,000,000원
										벽시계 임용태 목사 (한빛교회) 벽시계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반주기 박숙기 권사 (새은혜교회)	
경기노회장 박만진 목사 외 1,000,000원	경서노회장 하예성 목사 외 300,000원	전북노회장 김정호 목사 외 500,000원	전북동노회 정인직 목사 외 500,000원	서울남노회 김정용 목사 500,000원	서울동노회장 임용태 목사 500,000원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종학 박사 500,000원	전국장로연합회 김재호 장로 외 500,000원	전남노회장 서용진 목사 외 500,000원	조신제 목사 냉은수기		